

통상 News Brief 2022 _ Vol.4

October 26, 2022

법무법인(유) 세종 국제통상법센터의 통상 News Brief는 매월 수집되는 국제통상 관련 뉴스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며,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를 Top Story로 게재합니다. 이번 호에 게재된 통상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Top Story] p.3

미국 USTR 연설- 통상에 있어 진보적 산업정책의 강화

[주요 단신]

1) 관세 및 쿼터 p.5

- (10.12.) USTR, 중국산 상품에 부과되고 있는 제301조 관세의 실효성(effectiveness)에 대한 공공의견 수렴 계획 공고

2) 수출통제/경제제재 p.5

- (10.06.) EU, 러시아에 대한 8번째 제재 패키지 발표
- (10.07.) 미국, 대중 반도체 및 관련장비와 관련한 추가적인 수출제한조치 발표

3) 투자심사 p.6

- (09.27.) 미국 의회, 국외투자 심사메커니즘(outbound investment review mechanism)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 요청

4) FTA 등 경제블록화 p.6

- (09.23.) 미국 USTR, IPEF Pillar 1 무역(Trade)와 관련된 세 가지 협상 목표 발표

5) 디지털 p.7

- (09.15.) EU 집행위, 디지털 상품의 사이버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Cyber Resilience Act 발표
- (10.07.) 바이든 대통령, 국가안보기관이 미국과 EU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
- (10.07.) 미국-영국, 기술과 데이터에 관한 포괄적 대화(Comprehensive Dialogue on Technology and Data) 구축
- (10.13.) 미국-EU, 제2차 공동 기술경쟁정책 대화(EU-US Joint Technology Competition Policy Dialogue) 개최

6) 환경/노동 p.8

- (09.21.) 미국-EU, 무역과 노동 대화(Trade and Labor Dialogue) 진행
- (10.11.) WTO, 수산보조금협정 추가 협상 이슈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진행
- (10.17.) EU 이사회, 통상협정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위의 제안 검토결과 발표

7) 공급망 p.9

- (09.14./09. 29.) EU 집행위,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의 주요 원칙 발표/프랑스, 독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동제안서 제출

8) 기타 p.10

- (09.21.) USTR 대표,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WTO 분쟁해결 개혁을 주제로 비공식 대화 진행
- (09.23.) EU, 역외보조금법(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이행 규칙 12월 공개 예고

[Top Story]

미국 USTR 연설- 통상에 있어 진보적 산업정책의 강화

2022년 10월 7일 루즈벨트 연구소(Roosevelt Institute)에서는 ‘점진적 산업정책 컨퍼런스(Progressive Industrial Policy Conference)’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컨퍼런스는 총 6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통상(trade) 세션에서는 USTR의 대표인 Kathrine Tai가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미국의 산업정책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Tai의 발표는 미국의 변화한 통상정책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어, 아래에서는 해당 발표를 발췌·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우리는 지난 40여년동안 FTA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자유화와 관세 철폐로 인해 부가 특정 국가 및 기업에 집중되고, 이로 인해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급망은 약해졌고, 탈산업화 및 오프쇼어링이 진행되었으며, 제조업 공동체는 파괴되었습니다. 나아가 경제 불안,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통상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은 재검토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은 분명히 필요하여, 산업정책은 이러한 재균형화 노력의 일부입니다.

...

우리는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이 서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통상이 제한 없는 자유화, 값싼 상품, 효율성 극대화 그 이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장개방, 자유화, 효율성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공급망을 약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고위험에 노출시키며, 우리의 제조업 공동체 및 지구환경을 파괴시키는 크나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규칙(playbook)을 업데이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몫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도 다루어야 합니다.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도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세계 경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통상정책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완적인 산업정책은 실제 어떠한 모습일까요?

...미국과 EU는 지난 6월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를 발족하여 통상정책 관련 주요 이슈들에 관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우리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글로벌 통상시스템에서 맞닥뜨리는 비시장경제와 관행에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왜곡 효과와 제3국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조치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개발·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공급망 문제보다 더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경쟁력을 확충하고 번영하기 위해 미국과 EU

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보완적 방식을 통해 우리는 21세기에 새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아시아의 파트너 국가들에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5월에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출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IPEF는 전통적인 FTA가 아닙니다. IPEF에는 전통적 통상협정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급망(supply chain)과 탈탄소화(decarbonization)를 다루는 별도의 필라가 존재합니다. 나아가 IPEF에는 인프라, 조세 및 반부패와 관련된 조항들도 포함될 것 입니다. 간단히 말해 IPEF는 우리가 현재 당면한 모든 도전과제들을 다루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

바이든 대통령이 즐겨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변곡점에 있습니다(we are at an inflection point). 우리는 대기업과 거대 비시장경제에 혜택이 집중되는 현재의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미국에 대한 투자 촉진, 지속가능한 성장 및 우리의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하는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번영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단신]

1) 관세 및 쿼터

10월 7일 USTR은 중국산 상품에 부과되고 있는 제301조 관세의 실효성(effectiveness)을 판단하기 위한 공공의견을 수렴 해나갈 것을 발표함.¹

- 이는 불공정무역관행 시정이라는 무역확장법 제30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세부과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필요할지를 검토하기 위함임. 나아가 해당 조치들이 소비자를 포함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임
- 공공의견 수렴을 위해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1월까지 USTR Comments Portal, [Home \(ustr.gov\)](https://ustr.gov), 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임.

2) 수출통제/경제제재

10월 6일 EU 이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8번째 제재 패키지를 채택함²

- 8번째 제재 패키지에서는 70억 유로 규모 상당의 러시아산 완제품 및 반제품 철강상품의 수입과 기계 및 가전제품, 플라스틱, 자동차, 섬유, 신발, 가죽, 도자기 및 특정 화학제품과 장신구의 추가적인 수입금지를 도입하였음. 나아가 코킹 석탄(coking coal)을 포함한 석탄, 러시아 무기에서 발견된 특정 전자부품과 항공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술 아이템 및 특정 화학물질의 수출 제한도 도입함.
- 또한 2022년 9월 G7에서 합의된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price cap) 이행을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음. 유가 상한제의 본격적인 도입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022년 12월부터는 원유부터 적용될 계획이며, 2023년 2월부터는 석유정제제품에도 적용될 예정임.

10월 7일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 및 관련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함.

- 미국 BIS는 이번 제한 조치는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선진화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중국 정보기관이 군사적 응용이 가능한 민감한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음.³
- 미국 내 반도체산업협회인 SIA는 이번 수출통제 조치는 국제 파트너들과의 공조 하에 제한된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아울러 의도치 않게 미국 내 혁신이 저해되는 것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⁴

¹ [USTR Announces Next Steps in Statutory Four-Year Review of China 301 Tariffs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https://ustr.gov)

²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5989

³ [file \(doc.gov\)](https://www.doc.gov),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motie.go.kr)

⁴ [SIA Statement on New Export Controls -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semiconductors.org\)](https://semiconductors.org)

- 중국 외교부는 미 상부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미국은 기술 괴롭힘(technology bullying)을 중단하고 잘못을 시정할 것을 촉구함.⁵

3) 투자심사

9월 27일 미국에서 추진 중인 국가 핵심역량 방어법(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을 지지하는 상하원의 주요 인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에서 서한을 보내 국외투자 심사메커니즘(outbound investment review mechanism)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을 요청함⁶

- 현재 의회에서는 국외투자 심사메커니즘 등을 포함한 2022년 국가 핵심역량 방어법(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of 2022) 채택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의원들은 동 법안에 포함된 국외투자 심사메커니즘은 법안 채택 이전이라도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
- 해외의 적(foreign adversaries)에게 이루어지는 국외투자에 대하여 국가안보, 공급망 회복력 강화 측면에서 새로운 심사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임.
- 반면, 기업들은 2022년 국가 핵심역량 방어법(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of 2022)에 대해 그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이행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⁷
- 국가 핵심역량 방어법(NCCDA)은 미국 투자를 면밀히 조사하여 미국의 국가핵심역량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임. 미 하원의 발의하였던 대 중국 견제패키지였던(America COMPETES Act)에 포함되었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⁸

4) FTA 등 경제블록화

9월 23일 USTR에서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첫번째 필러(Pillar)인 무역과 관련한 세 가지 협상목표를 발표함.⁹

- 회복력(resilience): 강력한 무역원활화 조항을 통해 IPEF 국가간에 상품이 원활하게 국경을 이동할 수 있게 하여 회복력을 증진시키고자 함. 나아가 상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원활한 국가간 이동을 위해 투명성 조치를 향상시키고 모범규제 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을 수립해 나갈 것임. 마지막으로 IPEF에 경쟁 정책을 포함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도 구축해 나갈 것임.

⁵ <https://www.globaltimes.cn/page/202210/1276826.shtml>

⁶ <https://www.casey.senate.gov/news/releases/supporters-of-outbound-investment-legislation-urge-administration-to-take-executive-action-to-safeguard-national-security-protect-supply-chains>

⁷ [Outbound Investment Screening Proposals Should Be Narrow and Targeted - AAF \(americanactionforum.org\)](https://www.americanactionforum.org/outbound-investment-screening-proposals-should-be-narrow-and-targeted)

⁸ 상세보기 - 해외관세동향·관세, 규제, 마케팅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무역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국가무역정보포털 (tradenavi.or.kr)

⁹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2/september/indo-pacific-economic-framework-prosperity-biden-harris-administrations-negotiating-goals-connected>

- 포용력(inclusion): 바이든 정부의 핵심 통상정책은 높은 수준의 노동권 보장에 관한 약속을 설정하는 것임. 나아가 디지털경제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규범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통상정책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이러한 규범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임. 또한 IPEF는 다양한 경제발전 단계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모든 파트너국가들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약속을 추구할 것임.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국가간 통상은 번영을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보다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도구임. 전통적인 환경 및 기후 이슈를 넘어서 IPEF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량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농부들이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어나갈 것임.

5) 디지털

9월 15일 EU 집행위에서는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사이버 보안을 고려하도록 하는 사이버회복력법안(Cyber Resilience Act)을 발표함.¹⁰

- 동 법안은 2019년에 도입된 EU 사이버보안법(EU Cybersecurity Act)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ICT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및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사이버보안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집행위는 현재 유럽내 대부분의 인터넷 연결기기에 사이버 보안 의무가 적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10월 7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EU가 체결한 데이터 개인정보협정(EU-US data privacy agreement)에 따라 미국국가안보기관이 미국과 EU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¹¹

-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안보기관들이 기존에 수집하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되고, 해당 기관들의 개인정보 수집은 국가안보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로 제한됨. 나아가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장치도 마련하고 있음.
- 미국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 위원장인 Jason Oxman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유럽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동시에 대서양을 사이에 둔 데이터 이동사업의 확실성을 회복하고 주요 기업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한다고 평가함.
-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정부감시로부터 시민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특히 Max Shrems는 이전 협정의 핵심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음.

10월 7일 미국과 영국은 국경간 데이터 흐름을 논의하기 위한 기술과 데이터에 관한 포괄적 대화(Comprehensive

¹⁰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cyber-resilience-act>, EU, 인터넷 연결기기 사이버보안 기준 충족 의무화 법안 제안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¹¹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10/07/fact-sheet-president-biden-signs-executive-order-to-implement-the-european-union-u-s-data-privacy-framework/>,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6045

Dialogue on Technology and Data)를 양자간 기술 이니셔티브에 구축함.¹²

- 동 대화는 매년 개최될 예정이며, 영국과 미국간의 데이터 적정성을 구축하기 위한 양자간 기술 협력을 위한 장치임.
- 첫 대화에서는 데이터, 중요 신흥 기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함.

10월 13일, 미국과 EU는 기술분야에서의 경쟁정책과 집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공동기술경쟁정책 대화(EU-US Joint Technology Competition Policy Dialogue)를 개최함.¹³

- 2021년 12월, 미국과 EU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기술경쟁정책 대화를 출범시킴. 동 대화에는 미국의 연방통상위원회 위원장과 법무부의 반독점 부문 차관 및 EU집행위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참여함.
- 동 대화에서는 (1) 미래 핵심기술과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미래전망 분석의 중요성, (2) 디지털 부문에서 효과적인 규제 사례와 (3) 디지털 경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병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음.

6) 환경/노동

9월 21일, 미국과 EU는 양국의 통상, 노동 담당자와 기업이 참여하는 3자간 무역과 노동 대화(Trade and Labor Dialogue)를 개시함.¹⁴

- 무역과 노동 대화는 미국-EU의 기술무역위원회를 통해 설립되었으며, 디지털경제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노동자들의 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짐.

10월 11일 프랑스에서는 6월 제12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수산보조금협정의 추가 협상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이 진행되었음.¹⁵

- 수산보조금협정은 제5조를 통해 초과생산 및 초과어획에 기여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규범을 만들어나갈 것을 명시하고 있음. 나아가 제12조에서는 제13차 WTO 각료회의까지 포괄적인 협정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협상을 지속할 것을 언급하고 있음.

¹²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22/10/us-uk-joint-statement-new-comprehensive-dialogue-technology-and-data>,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and-us-progress-tech-and-data-partnership/uk-us-joint-statement-new-comprehensive-dialogue-on-technology-and-data-and-progress-on-data-adequacy>

¹³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6167,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2/10/federal-trade-commission-justice-department-european-commission-hold-their-second-us-eu-joint-technology-competition-policy-dialogue>

¹⁴ [U.S. Trade Representative and U.S. Department of Labor Host Transatlantic Tripartite Trade and Labor Dialogue with Union and Business Leaders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gov\)](#), [EU and US hold first Trade and Labour Dialogue \(europa.eu\)](#)

¹⁵ [WTO | 2022 News items - Members brainstorm on initiating "second wave" of WTO fisheries subsidies talks](#)

- 추가 협상에서는 강제노동, 비특정 연료에 대한 보조금지급 제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예조항(peace clause)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안되었음.

10월 17일 EU 이사회는 통상협정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집행위의 제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함¹⁶

- 2022년 6월, EU 집행위는 통상협정에서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특히 통상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지속가능개발 챕터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대 국가의 분쟁해결장치를 포함시키고, 최후의 수단으로 통상 제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바 있음.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EU 집행위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시함.

7) 공급망

9월 14일 EU 집행위 Thierry Breton은 EU 차원에서 진행 중인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에 대한 설명을 블로그에 포스팅함¹⁷

- Critical Materials Act는 2022년 EU 집행위원장이 발표한 후, EU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법안으로, 블로그에서는 3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 첫째, 안보와 기후 혹은 디지털 전환과 같은 전략적 분야에 집중하여 핵심원자재를 식별할 것이며, 둘째, 이와 관련된 유럽내 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셋째, 보다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채굴부터 정제, 가공, 재활용에 있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환경적 기준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 EU내 존재하는 환경 및 사회적 성과에 대한 인증 체계를 통합 개선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을 언급하고 있음. 나아가 전략적 비축과 2차적 원재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확인하고 있음.

9월 26일 프랑스와 독일은 EU 차원에서 진행 중인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와 관련한 공동 입장문을 집행위와 이사회에 제출함¹⁸

- 첫째,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공동 구매정책, 다변화를 위한 법적 인센티브 제공 등 핵심원자재 공급과 관련한 위기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둘째, 원재료 및 핵심원자재 생산 프로젝트에 필요한 투자를 지원하는 기존 재정조치들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셋째, 높은 수준의 ESG 기준을 바탕으로 글로벌 통상과 시장의 틀을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음.

¹⁶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10/17/council-conclusions-on-the-trade-and-sustainability-review/>

¹⁷ <https://www.linkedin.com/pulse/critical-raw-materials-act-securing-new-gas-oil-heart-thierry-breton/>

¹⁸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compet/2022/09/29/>

8) 기타

9월 21일 USTR 대표인 Katharine Tai는 G20 회원국 중 일부와 함께 WTO 분쟁해결절차의 개혁에 관한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¹⁹

- 동 대화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및 남아프리카가 참석하였으며 미국의 WTO 분쟁해결절차 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공유하였음.
- Tai는 WTO 분쟁해결절차 개혁에 있어서는 모든 WTO 회원국들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이러한 이해관계에는 이전 분쟁해결절차로 회귀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도 포함됨. 나아가 분쟁해결 시스템을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됨.

9월 23일 진행되었던 Lear Competition Festival 2022에서는 EU가 새롭게 도입한 역외보조금법(EU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상의 통보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언스가 12월 중 마련될 것임이 발표됨²⁰

- EU 집행위는 2023년 2분기에 역외보조금법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M&A 혹은 정부조달 참여시 진행하게 되는 사전통보방식, 시간제한 산정방법, 해외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예비조사 및 심층조사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발표함,
- 제3국 보조금 TF장(Head of Task Force Third- Country Subsidies)인 Christof Schoser는 9월 중 내부적으로 가이드언스 초안을 마련하고 12월에는 의견수렴을 위해 해당 가이드언스가 공개될 것이라고 언급함.

¹⁹ <https://ustr.gov/node/12179> (mofa.go.kr)

²⁰ <https://www.learcompetitionfestival.com/program/23-09-2022-1115-1230-parallel-session-1/>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